

현대 패션의 일본적 디자인 특성과 이미지 구성요인

김희정

부산경상대학교 패션디자인과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Composition Factor of Contemporary Japanese Costume Design

Hee-J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Busan Gyeongsang College, Bu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and composition factor of Japanese costume design. The stimulus were 25 contemporary costume design which represented the traditional image of Japanese. The main survey of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ir evaluation of the Japanese costume image by 26 semantic differential bipolar scales and the subjects were 99 female students majoring in clothing and textiles.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As a result of design analysis, contemporary Japanese costume design which represented the traditional image had traditional form, color, texture, pattern, etc. Through factor analysis about Japanese costume image 7 factors were identified; Attractiveness, Attention, Cool and Warm, Neatness, Activeness, Maturity, Classics. According to image positioning, Japanese costume design was classified by simple-decorative, soft-hard. As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preference of Japanese costume image was related to attractive factor.

Key words : Japanese costume design, costume image, composition factor, positioning, preference.

1. 서 론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 시대를 형성하면서 각국의 문화를 상호 교류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루고 있으며 패션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국제화된 글로벌 마켓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서구사회는 획일화 유형화의 생활패턴에서 다양성 개성이 강조되는 사회로의 이행으로 다원성을 추구하고 있고 복식에서도 표현의 다양성과 새로운 문화로의 관심으로 그 동안 패션계의 주류에서 다소 거리를 지녔던 동양문화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와 표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동양의 영향은 20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는 개방화, 세계화, 다원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제 현상으로 패션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각국의 문화가 복합되어 표출되고 동양적 요소의 유행현상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패션선도국으로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문화와 패션으로 세계 패션의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카다 겐조(Takada Kenzo),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등 일본 디자이너들은 옷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하이 패션계에 일본풍의 모드를 유행시켰으며 패션을 통한 동서양의 혼합적 요소로 일본 복식문화의 전파를 이루었다(김이은·조규화, 1996). 그들은 서구문화의 특성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문화와 상호·보완하여 서양의 전통적인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동시에 새로운 패션문화를 창조했다.

또한 1990년대의 생태학적 관심과 환경문제 등이 시대적 요구로 등장하면서 동양의 자연지향적인 감성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패션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세계적 명성을 지닌 디자이너들이 중국풍의 디자인 요소를 채택함으로써 동양주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전혜정, 1997), 동양의 패션에 대한 세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표현되고 있다.

더욱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오늘날은 국제적 교류가 보다 활발하고 보편화되어 국제화된 생활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화 추세가 점차 고조되고 유통개방 및 소비자들의 개성화·고급화·고감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감각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감각이 함께 표현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자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국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와 동일한 극동아시아 문화권

에 있으면서 국제화된 디자인 감각을 보편화시켜 세계적 패션 선도국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일본을 대상으로 일본의 전통적 이미지가 표현된 현대 복식디자인 특성과 이미지를 디자인 요소별 내용분석과 이미지 구성요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한 패션상품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제공과 다양화 양상으로 나타나는 소비자의 기호에 대처할 수 있는 패션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적 복식이미지

패션에 나타난 동양적인 모티브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그 유행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신비적인 분위기와 독특한 어두운 색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이종남 등, 1988).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풍은 20세기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연관되어 거의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동양적 취향은 뚜렷한 패션 테마로 등장하였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등 세계 정상의 디자이너들도 동양풍이 표현된 디자인을 많이 발표하여 서구에서 탈 중심화하여 다양한 패션의 이미지, 패션의 개성화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인 요소, 민족적인 요소 등을 복식에 많이 표현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패션을 구가하였으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미적 견해를 표현한 디자인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다카다 겐조, 이세이 미야케, 레이 카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등 디자이너들의 두드러진 활약과 일본정부차원의 정책지원으로 패션 선도국으로서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세계패션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서구패션계에 일본본의 주도적 역할을 한 디자이너들은 옷에 대한 서구인의 고정관념을 깨고 일본의 문화와 패션으로 세계패션의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일본 고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재질의 사용과 시각적 감각을 적용시켰으며(박명희, 1990), 전통복식인 기모노의 특징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일본민족 고유의 복장인 기모노는 전체적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고 직선적인 재봉을 하여 품에 여유가 있으며, 앞이 트여있어 좌우를 포개어 여미게 되어 있다. 앞여미에 오비를 매어 고정시키며 남녀의 형태상 차이없이 나들이옷, 일상복 등으로 이용하며 현대는 의례적 용도의 의복으로도 많이 착용되고 있다. 형태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개성미를 나타내기 위해 소재, 색상, 무늬 등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으며, 소재로는 천연섬유에서 합성섬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직조, 그리기, 편염, 홀치기염, 자수 등의 기계와 수작업에 의한 다양한 문양을 사용한다(황춘섭, 1990).

일본 전통복식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최초의 일본인 디자이너는 하나에 모리(Hanae Mori)

로 일본의 전통, 색상과 자연의 혼을 서구적인 미에 조화시켜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정성혜, 1995). 하나에 모리는 1960·70년대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일본의 패션과 문화를 서구의상에 적절히 접목시켰으며, 동양의 디자이너로서는 최초로 파리의상조합의 정식멤버가 되어 독특한 작품세계로 서구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또한 1970년대 파리의 패션계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그 변화 중의 하나는 다카다 겐조의 출현으로 서구 패션계에 동양에 대한 향수, 즉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유행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는 1970년 최초의 컬렉션에서 일본 기모노형태를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의상을 선보였으며 이를 계기로 기모노의 소매형태는 이후 서구복식에서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적용되어 왔고, 소매선의 변형은 빅룩의 실루엣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는 신선한 색채, 화려한 프린트, 자유롭고 편안한 레이어드 착장으로 현대 파리모드를 리드하는 디자이너로 호평받고 있으며 동양적인 정서와 서양의 문화를 적절히 조화시킨 파리의 일본인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는 전통적인 일본식 디자인과 아프리카 이미지의 직물들을 활용하였으며 작품의 근원은 기모노에서 출발하고 있다. 의상과 인체사이에 일정한 여유를 두어 공간을 자유자재로 창조하여 일본 전통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1971년 일본의 소재를 사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린트로 제작한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그 당시 일본의 패션은 오랜 전통속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세이 미야케가 이 일본의 패션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익을 담당하였고 동·서양복식의 융합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레이 카와쿠보는 1981년 처음으로 파리에서 패션쇼를 개최하였으며 그때까지 파리 패션계가 갖고 있던 옷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았으며, 일본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체형무시, 치수 무시의 혁명적인 옷들로 넓은 어깨와 빅 룩, 레이어드 룩 등을 표현하였다. 요지 야마모토 또한 매기, 두르기, 걸치기의 요소를 도입해 복잡하게 레이어드시킨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추구하였으며 이들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인해 한 동안 세계의 모드는 일본패션의 영향권에 있었다할 정도로 그 파급의 효과는 대단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전통복식인 기모노의 특성을 보다 현대적으로 나타난 비구조적인 의복의 새로운 복식조형으로의 창조, 레이어드 룩의 착장법, 사선의 여밈과 오비, 전통색상과 소재의 현대적 활용 등 현대패션에 일본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들 일본 디자이너들은 작품에서 전통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함으로써 일본적인 이미지를 세계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패션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패션의 예술성, 조형성 등을 부각시켰다(정성혜, 1995). 이와 더불어 일본패션이 세계화하는데는 경제강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일본본, 대중매스컴의 발달 그리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상과 같이 세계패션의 흐름은 다양화, 국제화의 추세를 따라 그 동안 서구패션에서 소외되었던 오리엔탈리즘과 레트로의 양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의 부각과 더불어 일본은 전통복식문화에 근거한 디자인으로 패션의 국제화를 이루었으며 현대 서양패션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하였다. 이처럼 민족적인 특성을 표현한 복식 이미지는 이제 세계패션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적, 민족적 특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패션 트렌드를 수용한 디자인이아말로 미래 패션의 중심이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일본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식자극물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섬유저널, 패션투데이, 폴레지오니, 콜렉션, 엘르 등의 국내의 패션잡지를 통해 복식사진 98점을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디자인 특성분석에 사용된 복식사진은 복식의장학 전공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분류·분석케 하여 66점을 이용하였다.

복식이미지 평가에 이용된 자극물은 디자인 분석된 66점의 사진에 대해 '일본적인-일본적이지 않은' 등 7점 평정척도의 형용사쌍으로 복식의장학 전공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하여 평점 5.0이상의 25점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3.2. 평가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의미분척도는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해 수집된 형용사로 구성하였다. 일본의 전통복식, 현대복식, 단어 등의 제시로 수집된 형용사 중 빈도수가 높은 형용사를 우선적으로 추출한 후 선행연구 등을 참고로 반대어를 추출하여 60개의 형용사쌍을 구성하였다.

1차 추출된 60개의 형용사쌍은 빈도를 우선으로 구성되어 의미의 중복가능성과 피험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군집분석의 Ward법을 실시하여 30개의 형용사쌍으로 축소하였다. 2차 추출된 30개의 형용사쌍에 대한 신뢰도 검정은 재검사법으로 하였으며, 안정성이 부족한 4개의 형용사를 제외한 26개의 형용사쌍으로 의미분척도를 구성하였다.

형용사쌍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가 .642로서 비교적 좋은 신뢰도 계수를 얻었으며 의류학 전공자로부터 내용타당성을 검정받아 실증적 연구를 위한 평가도구로 사용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의류학 전공자가 비전공자들에 비해 의복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Delong, 1977; 이경희, 1991)에 따라 부산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중인 3·4학년과 의류학전공 대학원생 등 총 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1998. 4. 9~18).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빈도수, 백분율, χ^2 검정, 주성분법에 의한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 다차원척도법,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일본적 복식디자인의 특성

일본적 복식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일본적 복식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한 디자인의 구성요소는 선행연구(김희정·이경희, 1997)를 참고로 하여 형태, 색채, 색채조화, 재질감, 문양, 장식, 여유성, 품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디자인 분석에 이용된 작품은 66점의 사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일본적 디자인의 특성을 디자인 요소별로 살펴보았을 때 형태적 특성은 상·하의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사각형의 비구조적인 H형 실루엣이 많았다. 이는 복식이 신체에 맞는 형태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착장을 통해서 복식의 실루엣이 완성을 보이는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이정후·양숙희, 1997; 정성혜, 1995)와도 일치되는 부분이다. 또한 칼라가 없는 V넥크에 어깨선이 내려오는 형태와 복식의 대칭성에 있어서도 비대칭형 디자인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는 기모노의 형태적 특성을 따르고 있는 점이라 여겨진다.

색채에 있어서는 상·하의 모두 유채색의 사용보다 무채색의 사용빈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의 전통색상 사용과도 일치되는 것으로(이상례, 1994) 검정색과 자연색을 중심으로 한 색채의 사용이 바로 그러한 점이다. 색채조화에서도 유사조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접색상조화보다는 동일색상조화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색채선호감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온난한 지방은 강렬한 원색이나 확실하고 강한 대비보다는 온화한 간색이나 약한 대비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와도 일치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숙, 1988).

재질감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팽팽한 소재와 재질감이 두드러진 가슬가슬한 소재의 사용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짐은 일본의 디자이너 중에서도 가장 전위적이며 일본과 서구식의 결합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세이 미야케의 독창적이고 새로움에 대한 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름종이, 고무, 철사 등의 소재사용(이은정, 1991)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이세이 미야케의 개인적 디자인의 소재사용 경향과 전반적인 일본적 디자인의 특성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문양은 사실적 문양, 양식화된 문양, 추상문양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프린팅 기법으로 표현한 기하학적 문양이 약간 두드러진다.

사실적으로 표현한 꽃 모티프는 대체로 작고 문양간에 거리를 두어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하였고 기하학문양은 모티프가 조밀하게 반복되는데 이러한 배치는 복잡한 느낌을 자아내게

Table 1. Composition factor of Japanese costume design n(%)

요소	범주	일본(66)	
형태	실루엣	H	40 (60.5)
		A	18 (27)
		V	7 (10.5)
		X	1 (2)
	구조	대칭	36(55)
		비대칭	30(45)
색채	상의	무채색	34 (52)
		유채색	32 (48)
	하의	무채색	34 (52)
		유채색	32 (48)
		난색	10 (15)
	한색	7 (11)	
색채조화	유사조화	동일색상조화	43 (65)
		인접색상조화	20 (30)
	대비조화	보색조화	1 (1.5)
		분보색조화	1 (1.5)
		3각조화	1 (1.5)
재질감		광택있는	12 (18)
		까슬까슬한	7 (10)
		부드러운	39 (59)
		비치는	5 (8)
		거친	3 (5)
문양		사실문양	12 (18)
		기하학문양	18 (27)
		추상문양	9 (14)
		전통문양	4 (6)
		양식화된문양	10 (15)
		무지	13 (20)
		무장식	23 (34.8)
장식	장식	만다린칼라	0
		보우(끈장식)	21 (31.8)
		매듭단추	1 (1.5)
		자수	2 (3)
		주름	3 (4.5)
		슬릿	4 (6.1)
		패치워크	0
		포켓	0
		털장식	0
		바인딩	7 (10.6)
여유성	상의	여유없는	5 (8)
		적당한	22 (33)
		여유있는	39 (59)
	허리	여유없는	13 (20)
		적당한	26 (39)
		여유있는	27 (41)
하의	여유없는	6 (9)	
	적당한	23 (35)	
	여유있는	37 (56)	
품목		원피스	18 (27)
		투피스	32 (49)
		쓰리피스	16 (24)

한다. 특히 일본의 전통적 복식 특성은 복식에 계절감을 결부시켜 복식에서 **사계를 느끼게 한다**는 점과 복식에서 그림과 같은 문양을 감상할 수 있는 **회화성** 등을 들 수 있는데(橫川 등, 1992) 현대복식에서도 다양한 문양의 사용으로 복식에서 회화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장식성에 있어 두드러지는 점은 허리부분의 벨트 역할을 하는 보우의 사용이 특히 많은 것인데 이는 기모노의 오비를 응용한 장식이 악센트로 사용된 것으로 일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오비를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이은정, 1991; 이상래, 1994)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칼라(Collar)도 기모노의 것을 활용하여 변화시킨 형태가 나타나는데 기모노의 깃은 목의 뒤부분에 여유가 있는 반면 현대적 활용에서는 목의 옆부분을 많이 노출시키거나, 목을 감싸며 들뜨지 않게 하여 앞 여밈분을 많이 주는 형태가 보인다. 여유성에 있어서는 상·하의와 허리부분에 모두 여유있는 것이 두드러지며 그 외에도 적당한 여유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본 전통복식의 거대화로 인한 겹쳐 입는 특성이 현대적 활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여유있고 넉넉한 품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식품목은 투피스, 원피스, 쓰리피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투피스는 상의와 바지의 착장보다는 상의와 스커트의 착장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일본풍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복식디자인은 전통복식의 여러 디자인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형태적 특성의 활용을 많이 하였으며 독특한 장식요소인 오비를 응용하여 일본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디자인이 많았다. 또한 형태적 특성에서 일본 전통복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 비구조적인 특성, 복식의 여유성 등의 요소는 일본적인 이미지 표현은 물론 기능성과 현대성이 강조되어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패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현대패션에 나타난 일본풍의 복식은 전통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들이었으며 특히 소재의 문양과 회화적 요소를 통한 계절감의 표현은 그들이 지닌 독특한 문화의 표출이라 여겨지며 이러한 전통적 요소의 활용과 디자인어가 지닌 다양한 감성의 결과로 나타난 민족적 정서를 지닌 디자인이 국제적 보편성을 지닐 때 글로벌 마켓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4.2. 일본적 복식이미지의 구성요인

일본적 복식이미지의 의미구조를 밝히기 위해 26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된 의미미분척도로써 평가한 자료를 요인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수는 고유값 1.0 이상으로 하여 7개로 결정하였으며 주성분법을 이용하여 Varimax적교회전을 시켰다.

요인 1은 좋아하는-싫어하는, 새련된-촌스러운, 멋있는-멋없는, 조화로운-부조화로운, 우아한-천박한, 정돈된-산만한 등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명은 요인에 포함된 용어들의 의미에 따라 매력성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2는 화려한-수수한, 강렬한-무난한, 화사한-칙칙한, 사치스러운-소박한, 여성적인-남

Table 2. Factor analysis of Japanese costume image

요인명과 형용사쌍	요인부하치
요인 1 : 매력성 요인	
좋아하는 - 싫어하는	0.821
세련된 - 촌스러운	0.818
멋있는 - 멋없는	0.808
우아한 - 천박한	0.607
조화로운 - 부조화로운	0.605
산만한 - 정돈된	-0.545
고유값; 5.218 전체변동(%); 20	
요인 2 : 현시성 요인	
화려한 - 수수한	0.808
강렬한 - 무난한	0.769
화사한 - 칙칙한	0.686
사치스러운 - 소박한	0.557
여성적인 - 남성적인	0.496
특이한 - 평범한	0.482
고유값; 3.918 전체변동(%); 15	
요인 3 : 온도감 요인	
무거운 - 가벼운	-0.753
답답한 - 시원한	-0.715
따뜻한 - 차가운	-0.572
섹시한 - 섹시하지않은	0.541
고유값; 1.935 전체변동(%); 7.4	
요인 4 : 단정성 요인	
복잡한 - 단순한	0.699
단정하지않은 - 단정한	0.624
들뜬 - 차분한	0.453
고유값; 1.793 전체변동(%); 6.9	
요인 5 : 활동성 요인	
편안한 - 불편한	0.838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0.761
꼭끼는 - 풍성한	-0.499
고유값; 1.274 전체변동(%); 4.9	
요인 6 : 성숙성 요인	
귀여운 - 노숙한	0.757
청순한 - 요염한	0.665
고유값; 1.130 전체변동(%); 4.3	
요인 7 : 고전성 요인	
고전적인 - 현대적인	0.741
동양적인 - 동양적이지않은	0.735
고유값; 1.033 전체변동(%); 4.0	

***p<.001 **p<.01 *p<.05

성적인, 특이한-평범한 등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명은 요인에 포함된 용어들의 의미에 따라 현시성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3은 가벼운-무거운, 시원한-답답한, 차가운-따뜻한, 섹시한-섹시하지않은 등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명은 요인에 포함된 용어들의 의미에 따라 온도감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4는 단순한-복잡한, 단정한-단정하지않은, 차분한-들뜬 등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명은 요인에 포함된 용어들의 의미에 따라 단정성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5는 편안한-불편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풍성한-꼭끼는 등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명은 요인에 포함된 용어들의 의미에 따라 활동성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6은 귀여운-노숙한, 청순한-요염한 등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명은 요인에 포함된 용어들의 의미에 따라 성숙성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7은 고전적인-현대적인, 동양적인-동양적이지않은 등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명은 요인에 포함된 용어들의 의미에 따라 고전성요인이라 하였다.

일본적 복식이미지에 대한 7개의 요인이 전체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7%로 나타났으며, 7개의 요인 중에서 매력성요인과 현시성요인이 일본적 복식이미지의 의미공간 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해보면 복식이미지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이경희, 1991; 이경희, 1994; 이은령, 1995; 김유진, 1997; 주소현, 1998) 이미지의 의미구조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매력성요인이었으며, 일본적 복식이미지의 의미구조에서도 매력성요인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력성요인은 복식이미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대상의 차이에도 안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현시성요인에 포함된 형용사들은 선행연구(문삼련, 1993; 김유진, 1997; 주소현, 1998)와 같은 현시성요인으로 박혜선과 이은영(1984)의 연구에서는 역능요인, 이경희(1991)의 연구에서는 실용성요인으로 나타났다. 온도감요인은 加藤·栢山(1982), 石塚 등(1987)의 따뜻함요인, 주소현(1998)의 온도감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단정성요인은 김희경과 이경희(1997), 김지연(2001)의 단정성요인, 김유진(1997)의 무난성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활동성요인은 선행연구(이경희, 1991; 정인희, 1992; 문삼련, 1993; 홍병숙·정미경, 1993; 주소현, 1998)에서도 같은 요인으로 나타나 복식이미지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성숙성요인은 차미송(1992)의 성숙성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전성요인은 선행연구(정인희, 1992; 김유진, 1997; 김희정·이경희, 1997)의 현대성요인, 전통성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4.3. 일본적 복식디자인의 포지셔닝

일본적 복식이미지를 나타내는 자극물 25개를 포지셔닝한 결과 2차원에서 stress값 .132와 90.6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Fig. 1은 유클리드 거리에 의해 유도된 각 자극물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가로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의 방향에 분포된 디자인 특성은 인체에 맞는 실루엣이 많았으며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두꺼운 재질로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여유있는 형태의 디자인이 많이 분포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의 특성과 유사성에 따라 가로축은 Fit-Loose의 이미지로 해석하였다. 세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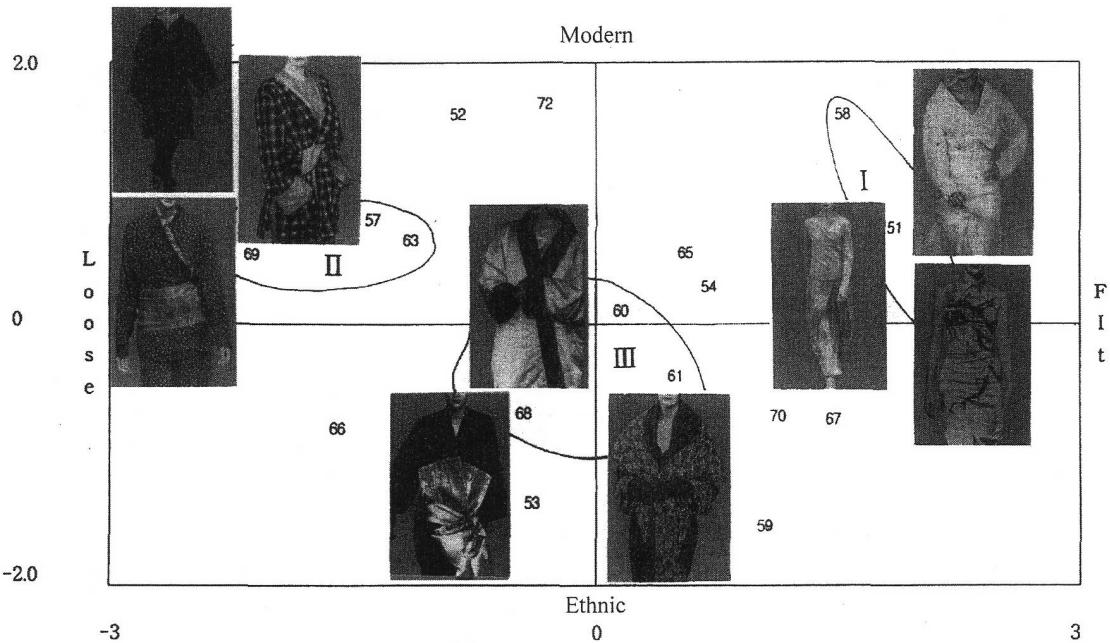


Fig. 1. Positioning of Japanese costume design.

은 가로축과 비교했을 때 분포된 디자인 특성과 유사성의 정도가 다소 떨어졌으나 양의 방향은 직선형의 실루엣이 많이 분포되었으며 음의 방향은 빅 룩의 형태가 강조되고 난색을 이용한 트리밍, 디테일 장식 등으로 표현된 디자인이 많이 분포되어 Modern-Ethnic의 이미지로 해석하였다.

일본적 복식디자인은 Fit-Loose의 이미지와 Modern-Ethnic의 이미지 축을 중심으로 분포된 위치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룹 1에 포지셔닝된 디자인은 피트하고 모던한 이미지 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인체의 실루엣을 강조한 의복형태와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감에 흰색, 회색의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컬러 등 무채색을 사용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으며 단정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룹 2에 포지셔닝된 디자인은 가로축의 루즈한 이미지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다. 인체를 여유있게 감싸는 넉넉한 형태와 오비 혹은 오비의 변형된 디테일을 이용하였으며, 소재는 비교적 두껍고 무게감있는 모직류나 편직물이 분포되어 있다. 그레이쉬 다크계열의 색채사용과 의복 전면에 작은 크기의 문양들이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전달하며 일본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룹 3에 포지셔닝된 디자인은 축의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운과 술 등 빅룩의 형태를 강조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며 난색계의 색채로 액센트를 주고 있다. 그룹 1의 부드러움을 강조한 소재와 그룹 2의 두껍고 무게감있는 소재의 중간정도의 재질감을 가지며 현대적 이미지와 전통적인 이미지가 조화되어 나타난 디자인이 많았다.

이상과 같이 일본적 복식디자인의 이미지축은 디자인 특성

에 따라 Fit-Loose, Modern-Ethnic의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디자인 특성과 이미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룹 1의 피트한 실루엣, 부드러운 소재에 흰색, 회색 등의 무채색을 사용한 디자인은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룹 2의 기모노의 비구조적인 직선적 형태와 오비를 응용한 디자인 포인트로 전통적 요소를 보다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룹 3의 가운 형태의 빅룩에 트리밍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준 디자인은 현대미와 전통미를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일본풍의 디자인은 전통 기모노의 비구조적 형태와 오비, 직조와 프린트를 이용한 문양의 표현을 이용하여 단정하고 현대적인 이미지, 전통 이미지를 강조한 이미지 등으로 분류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 고유의 디자인 요소와 현대적 패션 트렌드를 수용한 디자인 등의 효과적인 응용은 글로벌 마켓의 개성있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대응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나라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족 고유의 이미지를 고려한 디자인 전개는 세분화된 패션 시장에 있어 국가별 이미지의 패션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족고유의 디자인개발과 포지셔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4. 일본적 복식이미지와 선호도의 관계

일본적 복식이미지의 경우 '좋아하는-싫어하는'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12쌍의 독립변수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9.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Table 3).

이 중 멋있는-멋없는의 형용사쌍이 가장 높은 관련을 나타냈으며 세련된-촌스러운, 시원한-따뜻한, 정돈된-산만한, 편안한-불편한, 우아한-천박한, 조화로운-부조화로운, 청순한-요염한, 화

Table 3. The relation of Japanese costume image and preference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T-value	R ²
좋아하는- 싫어하는	멋있는-멋없는	.351	18.910***	59.8%
	세련된-촌스러운	.287	15.738***	
	답답한-시원한	-.113	-7.856***	
	산만한-정돈된	-.085	-5.201***	
	편안한-불편한	.061	4.451***	
	우아한-천박한	.058	3.521***	
	조화로운-부조화로운	.052	3.476***	
	청순한-요염한	.042	2.905***	
	화사한-색시한	.043	2.863*	
	들뜬-차분한	-.044	-2.847*	
	귀여운-노숙한	.033	2.378*	

***p<.001 **p<.01 *p<.05

사한-색시한, 차분한-들뜬, 귀여운-노숙한 등의 순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일본적 복식디자인에 대한 선호도와 관계 있는 이미지는 멋있는, 세련된, 시원한, 정돈된, 편안한, 우아한, 조화로운, 청순한, 화사한, 차분한, 귀여운 등의 이미지로 매력성을 구성하는 형용사쌍과 성숙성을 구성하는 형용사쌍들이 주로 포함되어있다. 이 외에 현시성, 온도감, 단정성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형용사쌍들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미지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편안한-불편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등의 활동성 요인과 고전적인-현대적인, 동양적인-동양적이지 않은 등의 고전성 요인에 포함된 이미지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고려한 디자인 전개는 멋있는, 세련된, 시원한 등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강조하여 표현한다면 좋아하는 선호도와 함께 일본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일본적인 패션상품 이미지 전달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본적 복식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일본적 복식디자인은 일본 고유의 전통복식 특성을 많이 반영하였으며 특히 형태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일본적인 복식디자인은 비구조적 형태의 특성과 오비의 사용, 문양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기능성과 장식적 효과를 함께 표현하였으며 이처럼 일본의 고유한 미적 디자인 요소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현대패션에서 일본의 전통 이미지를 보다 부각시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적 복식이미지의 구성요인은 매력성, 현시성, 온도감, 단정성, 활동성, 성숙성, 고전성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매력성 요인과 현시성 요인은 일본적 복식이미지의 의미공간 내에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이미지를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패션상품 기획에 반영한다면 전통적 요소를 가미한 현대적인 일본풍의 복식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적 복식디자인의 이미지측은 포지셔닝된 디자인 특성에 따라 Fit-Loose, Modern-Ethnic의 이미지로 해석되었다. 피트하고 모던한 이미지 측을 중심으로 분포된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단정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루즈의 이미지측을 중심으로 분포된 디자인은 일본의 전통적 이미지를 특히 강조하였으며 측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포지셔닝된 디자인은 현대적 이미지와 전통적 이미지가 조화되어 나타났다. 일본적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포지셔닝된 디자인 특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분류된 디자인 특성별 포지셔닝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의 세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본적 복식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 멋있는, 세련된 등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와 관련된 이미지는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와 연결되므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일본적 복식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일본 고유의 특성을 표현한 상품기획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적 패션시장이 형성되는 현 시점에 각 나라의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국의 패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과정의 자료수집에 있어 부산 지역의 의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디자인 특성분석에 이용된 자극물이 실물자료가 아닌 사진을 대상으로 하여 소재와 색상파악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전공자들의 평가 외에도 비전공자, 일반인들의 평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극물 수집에 있어서도 일본적인 복식디자인을 디자이너의 국가나 소속에 상관없이 복식이 지니는 이미지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후속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정체성을 지닌 디자이너들의 자국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과 본국의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 일본적 이미지만을 복식에 표현한 디자인의 경우 나타나는 디자인 특성과 이미지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숙 (1988) 한국 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유진 (1997) 상반되는 의복이미지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이은·조규화 (1996)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학*, 20(5), 801-816.
 김지연 (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노출의 감성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 이경희 (1997)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디자인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1(3), 589-599.
- 문삼련 (1993) 의복형태와 물방울무늬 공간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1990) 이세이미야게(Issey Miyake)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9-20.
- 박혜선 · 이은영 (1984) 의복에 대한 의미분척도의 구성요인추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논문집*, 9, 103-108.
- 이경희 (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4) 의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례 (1994) 현대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한국·몽골·중국·일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령 (1995) 실루엣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1991)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정후 · 양숙희 (1997) 현대 일본 복식에 나타난 선미학적 경향에 관한 연구-1980년대 이후 Rei Kawakubo, Issey Miyake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7), 1184-1195.
- 이종남 · 안혜준 · 김선영 · 정명숙역 (1988) “복식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까치출판사, 서울.
- 전혜정 (1997) 동서양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3), 82-94.
- 정성혜 (1995) 일본패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25, 21-39.
- 정인희 (1992) 의복 이미지의 구성요인, 계층구조 및 평가차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현 (1998) 의복, 배경, 비율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병숙 · 정미경 (1993) 여성 수트의 이미지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20, 73-82.
- 황춘섭 (1990) “민속의상”. 수학사, 서울, p.103.
- 横川公子 · 河原由紀子 · 堀脩 編(1992) “服飾表現の位相”. 昭和堂, p.139.
- 加藤雪枝 · 榎山藤子 (1982)ブラウスの衿のイメージに及形状及び色の効果. *繊維製品消費科學誌*, 23(4), 159-164.
- 石塚純子 · 加藤雪枝 · 榎山藤子 (1987)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着装イメージ, *日本家政學會誌*, 38(4), 321-332.
- Delong M. R. (1977) Clothing and aesthetics : Perception of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5(4), 214-224.

(2002년 1월 11일 접수)